

어린이는 미래를 살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대할 때는 진지하게, 부드러움과 존경을 담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건 간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의 내면에 있는 ‘미지의 사람’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언젠가는’ ‘지금 아닌’ ‘내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 아뉴슈 코르착, [아이들]



공동 육아란?

공동육아는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우자는 것’
‘너와 내가 어울려 함께 세상을 살아가자는 것’
‘어른과 아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자는 것’

형제자매가 적은 요즘, 더불어 사는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부모들도 공동체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육아는 ‘내 아이만 바라보기’가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아이와 어른이 함께 성장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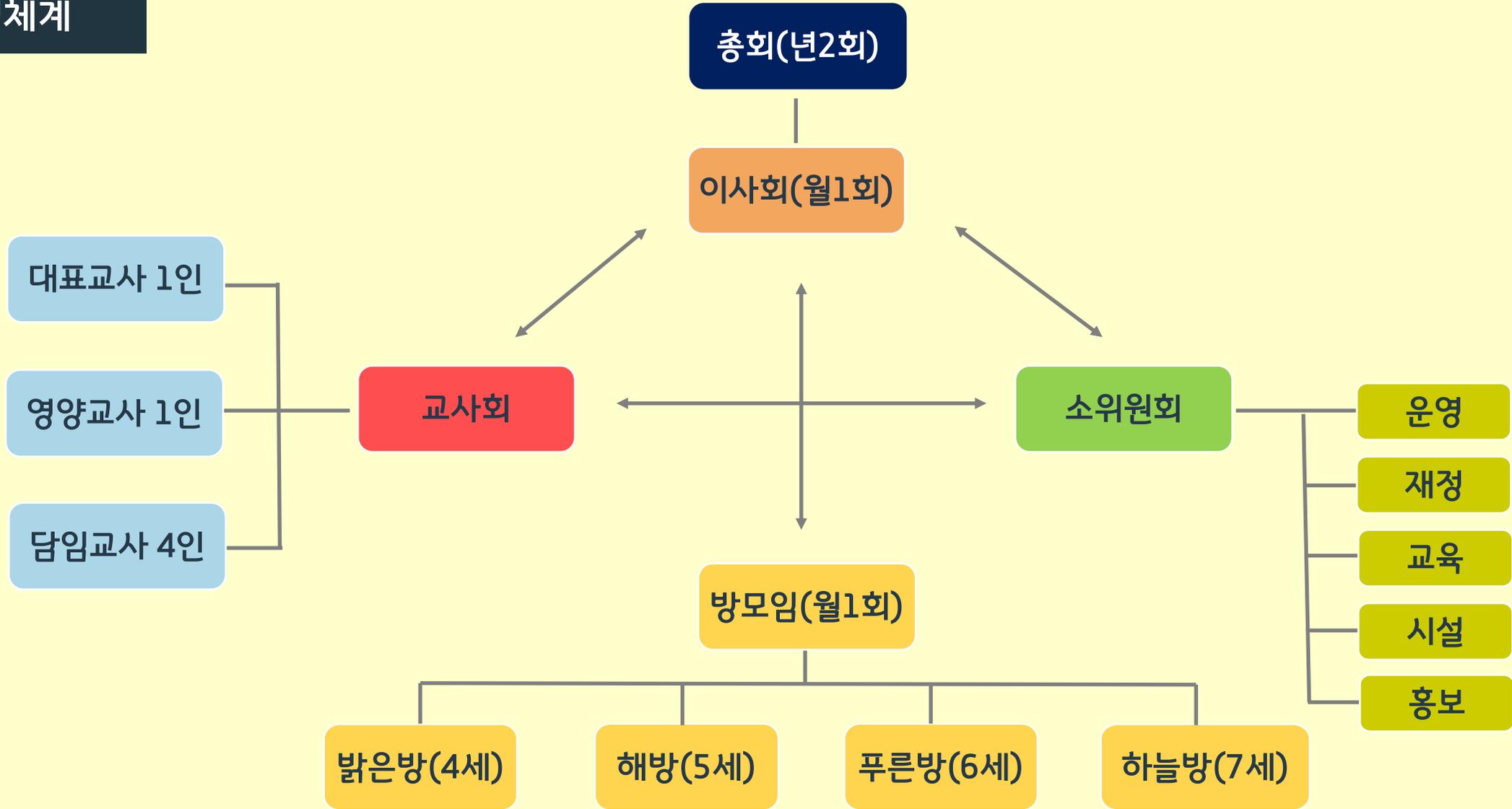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이란?

‘공동육아’의 교육철학을 토대로 부모들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부모가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곳이 아니라, 부모, 교사, 아이가 어린이집의 동등한 주체로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갑니다.



운영체계



조합 활동

‘아마’(아빠,엄마)라는 말에는
내 아이만의 부모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부모가 되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가입비/출자금/조합비

조합 가입 시 가입비와 출자금을 납부합니다. 출자금은 졸업 후 공적자금 공제 후 반환됩니다. 야호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닌 비영리 협동조합이기에 조합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는 전액 어린이집의 운영과 아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아마활동(일일교사)

교사들이 놀날(휴가)이나 교사대회로 자리를 비울 때, 아마들이 일일교사 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 관계맺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터전에서 하는 일일 아마활동 이외에도 방학 기간에는 가정 아마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소위 & 이사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장 이하 운영, 교육, 시설, 재정, 홍보 소위가 있으며, 모든 조합원은 반드시 하나의 소위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각 소위의 대표를 이사라 칭하며, 가구당 1인이 1년간 이사직을 수행합니다.

방모임

동일연령을 기준으로 편성된 방의 교사와 부모의 모임으로 매월 1회 진행합니다. 방모임은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 단위입니다. 방모임에서 야호 생활과 아이들 성장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교육적인 제안을 하거나 토론하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소통합니다.

기타 활동

깎끄미, 대청소(연 2회), 김장(봄 소김장, 가을 대김장), 소모임, 번개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부족함을 서로 채웁니다. 아마의 참여에 따라 야호의 한해살이는 다양한 모습과 색을 발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요”

아이들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나들이를 통해 사람, 지역사회, 자연 등을 탐색하고 관계 맺으며 성장합니다. 농사를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의 순환과 질서를 경험하고, 먹거리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단순히 유기농 재료의 먹거리가 아닌 음식을 통한 교육과 문화 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스스로의 생활 문화를 만들어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자발적 자유놀이, 전통문화 재구성 전래놀이, 세시절기 교육, 다양한 표현 예술활동, 기본생활습관을 생활 속에서 익혀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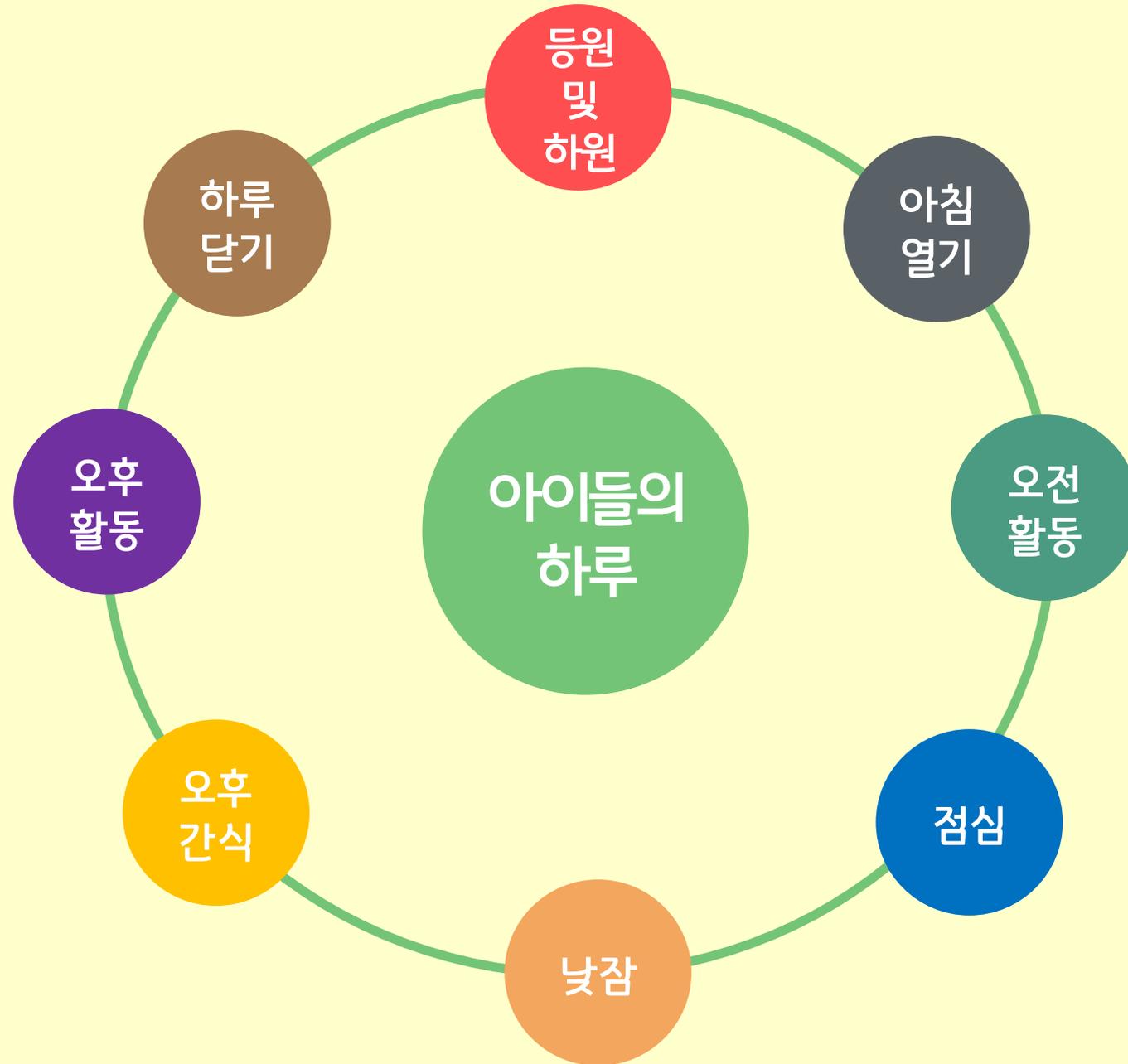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해요”

아이들은 친구들과 깊이 있게 만나고 다양한 어른들과 어울립니다. 별명과 평어 문화, 모둠 활동, 부모,교사의 회의 문화, 마실 문화, 부모와 교사 간 날적이 등 어린이집 생활과 교육 속에 소통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해요 ”

‘통합’을 다름에 대한 인정의 의미로 광범위하게 봅니다. 그리고 다름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다양한 교육 공간과 시간의 부여, 연령 통합 활동, 성평등 교육, 장애 통합 교육, 계층 및 문화 통합 교육 등이 있습니다.



야호의 문화

아침열기와 하루닫기

아침 10시까지 모두 등원합니다. 방별로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둘러앉아 간단한 과일과 차를 마시며 함께 하루를 엽니다. 간밤의 안부를 묻고 그날 하루의 계획을 아이들 스스로 세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활동을 모두 끝낸 5시 30분에는 하루닫기를 합니다. 아침열기 때 세웠던 계획을 되돌아보고 그날 있었던 일, 속상했던 일, 좋았던 일 등 서로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고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나들이

텃밭으로 숲으로 동네 나들이를 갑니다. 논에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밤을 따고, 방아 깨비와 무당벌레와 친구가 됩니다. 텃밭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작물을 키우며 자연의 순환을 느낍니다. 가끔은 버스를 타고 먼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1박2일, 2박3일의 들살이를 떠나기도 합니다. 평생 아파트만 보고 자란 아이가 가지게 되는 꿈은 아파트로부터 얼마나 멀어질 수 있을까요. 나들이를 통해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인식하고 그에 감응하면서 더 풍부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야호의 문화

먹거리와 식습관

자연드림, 한살림 등 생협에서 공급받는 유기농, 친환경 식재료로 하루 네 끼 제공됩니다.
인공조미료나 인스턴트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우리 고유의 전통 음식과 제철 음식을 먹습니다.
유기농 먹거리는 단순히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넘어 문화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세시절기와 먹거리를 연결하여 계절의 특성이 살아 있는 먹거리, 정성과 노력이 들어 있는 먹거리의 중요성을 아이들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유놀이

성장은 언제나 균열과 틈, 변수와 모험들 사이에서 생겨납니다.
놀이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틀에 맞춰진 교육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고안해내고, 충분히 탐색하는 자유놀이는 자신의 상상력을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는
공동육아 교육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든 놀이를 만들어내는 창조자입니다.
터전과 자연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놀이터가 되고 만들어진 장난감이 없이 주변의 생활용품과
자연물로 스스로 놀이를 만들어냅니다.

야호의 문화

평어쓰기

아이들이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고, 대등한 위치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이, 위계에 관계없이 서로 평어를 사용하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데 주저함이 없이 생동감 넘치게, 때로는 과감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른들 또한 아이를 일방적 훈육의 대상으로, 무언가를 가르쳐야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어린 시민으로서 존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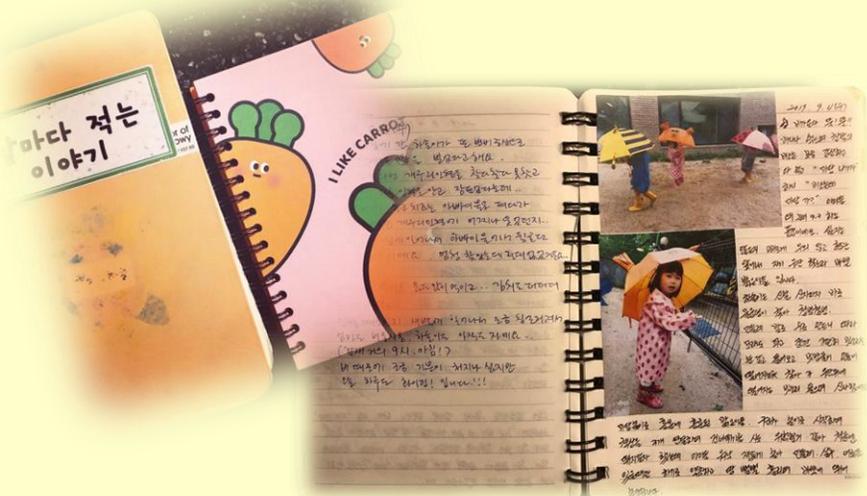
날적이

날마다 적는 이야기라는 뜻으로,

아이에 대한 기록물이며 교사와 아마와 소통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교사와 아가가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 아이에 관한 이야기와 고민 등을 글로 주고받으며 함께 아이를 키워갑니다.

졸업 후 남는 몇 권의 두툼한 날적이는 그 자체로 소중한 아이의 성장 일기가 됩니다.



공동육아를 시작하려는 부모님들께

자기 자신을 찾으려 애쓰고
함께 길을 찾아가세요.
아이들을 알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려고 애쓰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도 한때 어린아이였음을
깨달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려면 무엇보다 먼저
아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야뉴슈 코르착-

공동육아 교육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것.

그 아이로 인해 사람다운 사람이 한 둘씩 늘어나는 것.

한 둘의 아이들이 스멀스멀 삭막한 사회에 온기가 되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싫은지.

무엇이 우선이고 나중인지를 분별해 낼 줄 아는 것.

멋진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보다

자전거로 동네를 달리는 것이 더 가치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저는 아이들의 울타리는 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대표교사 파릇파릇의 글 중 -